

백제불교 초전성지 확 달라졌네

불갑사, 일주문 세우고 사하촌 4만평 정비 오토캠핑장·자연학습장 등 휴식공간 조성

백제불교 초전성지 불갑사(주지 만당) 사하촌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참배객 맞이에 들어갔다.

불갑사와 영광군은 지난 2002년부터 불갑사지구 정비사업을 펼쳐 일주문 건립, 상가정비,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치고 관리사무소 주변정리만 남겨놓고 있다.

불갑사는 가림에서 1km 아래에 일주문을 건립하고 경내지에 난립했던 상가와 민가를 새로 조성된 단지로 이주시켰다. 일주문에서 가림까지는 연못과 정자를 세우고 자연학습장을 겸한 참배로를 조성했다. 또한 4만평 규모의 불갑사 사하촌은 오

토캠핑장, 다목적 운동장, 자연학습장을 갖추고 있어 참배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사회혼란기에 가림이 쇠퇴하면 서 경내지까지 민가가 들어섰다"며 "사하촌 정비로 수행환경 회복과 백제불교 초전성지의 면모를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도 "백제 불교와 모악산 꽃무릇 축제 등 전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불갑사 지구는 매년 사찰참배 및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교문화, 환경휴양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시작된 불갑사 지구 정비사업 일환으로 새로 건립된 불갑사 일주문 전경.

한편 불갑사는 지난 1997년부터 8차 중금강문 일주문 복원으로 도량을 일신하고 창불사를 전개해 양진당(선원 비전(염화실) 보강각(장서각) 청풍각 백운당 범종루 유물전시관(6월 준공예정)을 건립 중이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세

정영균

목포불교대학 사무국장, 포교사



"역시 시험은 수험생 뿐 아니라 주위에서 격려하는 이도 함께 보는 것인가 봅니다."

한 달여간 밤늦도록 후배들의 포교사 고시를 독려하며 시험정보를 찾아 제공하던 목포불교대학 정영균 사무국장.

"시험이 끝나자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하다"면서도 요즘 그는 불교대학 신학기 준비로 날밤을 세우고 한다.

정 법사의 일과는 새벽정진을 시작으로 하루 24시간 포교로 일관한다. 지역 군법당, 교도소, 각종 신행단체 등 한달이면 20여 차례 법회를 주관하고 법문을 한다. 한번의 법회를 위해 3-4시간 법문준비를 한다. 그렇다고 법사비를 받는 것도 아니다. 불교대학 일은 물론 법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원봉사다.

지 않았다.

그러던중 법사가 없어 법회에 어려움 겪고있는 군법당 호국 사자사와 인연이 맺어졌다. 이후 동료 포교사들과 함께 6년간 매주 법회를 이끌고 있다. 사자사 법회에 자신감을 얻은 정 법사는 목포 해역사 군법당인 해광사에 서도 매월 한차례 법문을 하고 있다.

정 법사의 법문은 교단에서의 경험과 충분한 법문 준비로 인기가 높다. 교도소, 윤불련, 직장법회 등 정 법사를 찾는 곳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주말을 잊은지 오래다.

"장년후 골프치고 산에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젊어지는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나를 찾는곳이 있고, 그들을 위해 힘쓰다보니 건강도 함께 따라오나 봅니다."

정 법사의 집은 광주다. 포교사로

8년전 불교와 인연, 군법당 등서 월 20회 법문 교단서 쌓은 풍부한 경험·알찬 준비로 늘 인기

"불법(佛法)만큼 좋은 법이 어디있습니까. 알려야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불법을 전해야 합니다."

정 법사가 불교를 만난 것은 오래되지 않는다. 8년전 해남의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시절, 인근 사찰 광보사로 소풍을 가게됐다. 그때까지 종교가 없었던 정 교장은 주지 자황스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후 목포불교대학에 등재하고 기초교리를 시작으로 불교를 체계적으로 접했다.

2001년 58세의 나이로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합격하고, 성지순례와 큰스님 참배를 통해 공부할 계를 열었다.

활동하면서 잠시도 목표를 떠날 수 없어 2년전 정년퇴직을 하면서 목포에 개인공간을 마련했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 적적하기는 하지만 토포마냥 정진하고 법문준비하기에는 그만이다.

지난해 전남도 청사가 무안으로 옮겨오면서 정 법사는 새로운 기운을 감지하고있다. 목포불교가 도약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틈나면 도청 불자회와 포교사단이 힘을 모아 지역불교를 일으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 법사는 "숨 쉴수 있는 힘만 있어도 수행하고 포교하겠다"고 말한다.

이준엽 기자

"어르신, 어께 활짝 펴세요"

송광복지관, 주민화합 경로잔치 마련

광주 송광중합사회복지관(관장 현고)은 지난 2월 22일 복지관 소극장에서 "경로위안잔치 한마당"을 열고 지역노인을 위로했다.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로잔치에서 복지관장 현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이 웃어뜰에 대한 공경심을 함양하도록 하기위해 세화기 시작에 앞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며 "겨우내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털어내고 건강한 한해를 보내기 바란다"고 당

부했다.

경로잔치는 점심공양에 이어 원각사 후원 공연팀이 출연해 살풀이, 아쟁산조, 판소리, 민요 등의 공연과 지역노인들의 노래장기자랑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한편 송광중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개관했으며, 아동 청소년에서 노인은 물론 장애인에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62)941-8248

이준엽 기자



2월22일 열린 '경로위안잔치한마당'에서 송광중합사회복지관장 현고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호남 고속철도 계룡산 관동반대 단식 계룡산시민연대는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해 공주지역에 역사 설치와 계룡산 관동반대를 위해 공주 지역 종교 및 시민 단체들이 2월 15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상임대표 자성 스님(신원사 주지), 운영위원장 이준원(공주대 행정학과교수)가 2월 23일 현재 단식 9일째를 맞고 있다.

소아암 어린이 생일잔치 생명나눔실천 광주본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은)는 지난 2월 21일 화산 전담대 병원 소아암 병동 놀이방에서 어린이 생일잔치를 열었다.

병원관계자와 소아암 어린이 50여명이 참석한 생일잔치에는 이달의 생일자 15명이 축하선물을 받았다.

이날 생명나눔 광주본부 윤예중 사무국장은 "투병환우 지원사업 일환으로 현행중서·투병지원금 모금 등을 펼치고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062)234-6602

이준엽 기자

"법회 늘리고 봉사 더 한다" 옥천경찰서 경불회

옥천경찰서 경불회(회장 박세영)는 2월 25일 옥천 용암사에서 경승위원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정기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옥천 경승회(회장 혜철)는 경불회 창립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조남회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회원들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혜철 대전 총부 지사장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4월30일 연합봉축행사

청주청원불교연 월례회의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는 2월 21일 법인정사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기획국장에 연복흥, 포교국장에 유병관, 설외국장에 남윤호 씨를 임명했다.

또 부처님 오신 날 행사와 관련, 4월 13일 봉축담 점등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연합봉축행사는 4월 30일 봉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혜철 대전총부지사장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개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 환혼동(幻魂動):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魂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과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화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치면: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 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풀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확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神 임상치면사



現근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치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참선공의식 사례

-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도 돌아가서 한의원 병원 기공.국.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60세 중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약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었다.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50세 중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추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 개강일: 2006. 3. 3
14:00 - 18:00 (10회 과정)

전 수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빙의·해리 치유법
자비손 치유법	전생 치유법
음성 내공법	내생 치유법
도인 양생 비법	칠차원 생명법

-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치면 자격증 神치유명상사 자격증 발급.
- ◆ 지도자과정 전수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후원 합니다.
-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근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